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업체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글로벌 물류서비스 제공업체들 중국 내수시장에 관심 집중	2
□ 인도 강가바람(Gangavaram)항 선석 건설 및 준설 프로젝트 입찰 제안	3
□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물류기술 및 운송박람회(CeMAT ASIA 2011) 개최	4
□ UPS, 독일 쾰른(Cologne-Bonn) 공항물류허브기지 확장 및 현대화 사업 추진 발표	5

1) 연락처: 김찬호 전문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전문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김홍매 전문연구원(02-2105-2828, hisgrace@kmi.re.kr), 황현주 연구원(☎ 02-2105-2897, julya7@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 글로벌 물류서비스 제공업체들 중국 내수시장에 관심 집중

- 중국의 경제성장 동력이 서부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Toll, CEVA, Kerry와 같은 글로벌 물류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중국 도로화물운송 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구축
 - Kerry Logistics는 충칭(Chongqing) 물류센터의 규모를 83,000m²까지 확장하고, 허페이(Hefei)에는 20,000m² 규모의 자동차 물류센터를 설립하기로 발표
 - 뿐만 아니라 우시(Wuxi)에도 신규 물류센터를 오픈하였음
 - Panalpina도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공식 발표, 도로 포워딩 분야에 진출
 - Panalpina는 40ft 또는 45ft 컨테이너를 이용한 일괄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동 서비스는 중국 서부지역의 대형 도시, 특히 청두와 충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연해지역 및 동남아시아의 '컨' 터미널을 통해서 운송되는 고가 제품(high-end products)의 내륙운송 활성화가 예상됨
 - * 중국내 육상 컨테이너 수송서비스 분야에서 해운 및 항공 포워더가 LCL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경쟁력 확보에 큰 발전임
 - CEVA도 중국에서의 입지를 확장 중에 있으며 아웃소싱 시장에 집중
 - CEVA는 중국 자동차 메이커 SAIC과 합작으로 설립한 Anji-TNT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주요 국유기업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성장을 도모함
 - CEVA 동북아지역 부총재 Ditlev Blicher는 상당수 글로벌 물류기업이 지난 20년간 중국 수출을 뒷받침한 항만 부문에 집중되었으나, 향후에는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내수시장에 성장의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언급
 - 한편, 현재 중국 국유기업들의 아웃소싱 수준은 매우 낮으나 향후 아웃소싱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1.09.16.

김홍매 전문연구원(☎ 02-2105-2828, hisgrace@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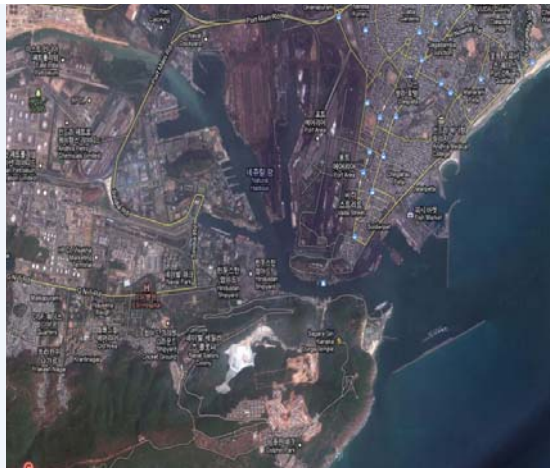
□ 인도 강가바람(Gangavaram)항 선석 건설 및 준설 프로젝트 입찰 제안

-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주에 위치한 강가바람(Gangavaram)항은 선석 건설 및 준설 작업 착수를 위한 입찰을 제안
 - 금번 입찰은 2008년 항만 운영을 시작한 이후의 첫 입찰로서 준설부문의 글로벌 기업 및 인도 국영기업인 Dredging Corporation of India를 포함한 인도 국내의 다수 기업이 입찰에 참여함
 - 사업자 선정은 향후 2~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고 계약 이후 2년 이내에 프로젝트가 완료될 예정임
- 시설개발 규모는 3개의 다목적선석(수심 14.5m), 자동화 석탄선석(수심 18.5m)을 포함한 4개의 신규 선석
 - 선석 건설 및 준설 작업을 포함한 투자비 규모는 Rs. 1,200 Crore(약 2억 4,900만 달러)¹⁾로 추정
 - 프로젝트 완공시 강가바람항은 15만톤급 대형 선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강가바람항은 2008~2010년 3년간 600척의 벌크 선박(그중 10%가 Capesize 선박)을 포함한 750척의 선박을 처리하였으며, 2010~2011년 2년간 화물 처리량은 1,400만 톤 이상으로 추정

< Gangavaram항 위치 >



< Gangavaram항 전경 >



자료: www.dredgingtoday.com, 2011.0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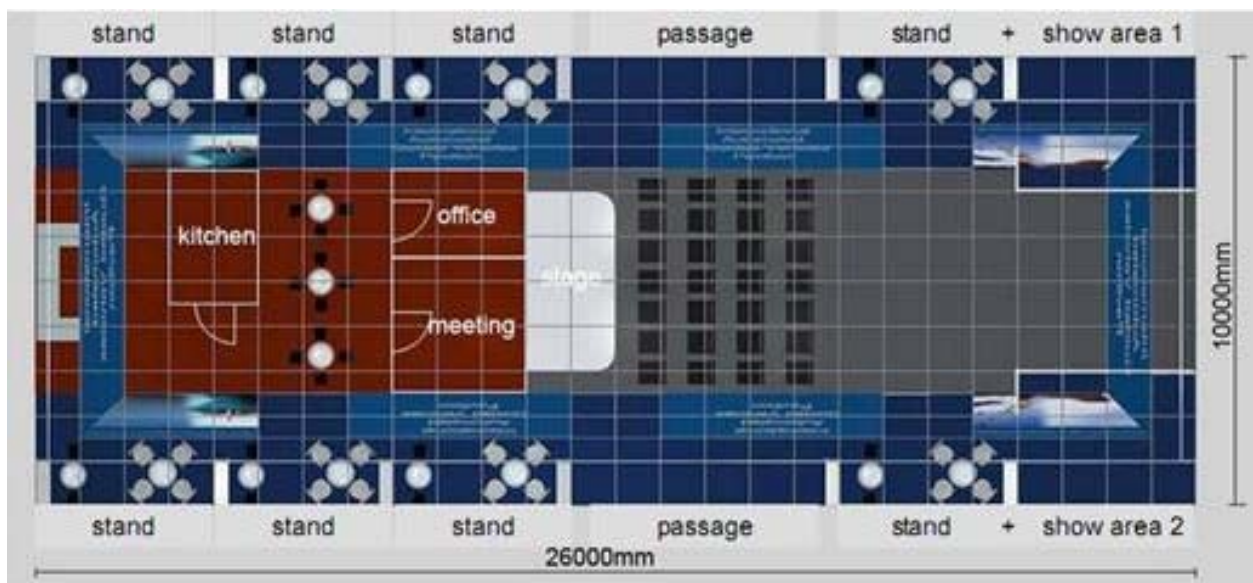
황현주 연구원(☎ 02-2105-2897, julya7@kmi.re.kr)

1) 1\$=48.04Rs (2011년 9월 21일 외환은행 기준)

□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물류기술 및 운송박람회 (CeMAT ASIA 2011) 개최

- CeMAT ASIA 2011이 중국 상하이에서 10월 25일부터 개최
 - CeMAT ASIA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물류기술 전시회로서 중국 물류운송시장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00년에 처음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0차례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전세계 450여개 기업과 6,0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올해는 포장장비(Packing Equipment), 크레인(Crane), 무인자동차량(AGV: Automated Guided Vehicle), 운송장비(Transportation), 무인인식장비(AUTO-ID)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최신기술을 발표할 예정임
 - 또한 전시회기간동안 SCM, 석유제품저장, 중국물류기술, 물류서비스 혁신, 군사 및 응급물류 등에 대한 현황과 최신 트렌드를 발표할 예정임

<AGV 시현전시관 조감도>



자료 : 중국물류정보망(中國物流信息網) - 2011.09.

이주호 책임연구원(☎ 02-2105-2890, jooho@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UPS, 독일 쾰른(Cologne-Bonn) 공항물류허브기지 확장 및 현대화 사업 추진 발표

- UPS는 독일의 공항물류허브로 사용하고 있는 쾰른공항의 기존 시설에 대한 확장과 신규 장비 도입을 위해 2013년까지 총 2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
- 사업이 완료되어 2014년 운영에 들어가면, UPS의 쾰른공항 물류기지는 시간당 8만개의 화물을 분류하고 최대 19만개의 소포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능력을 보유할 예정
- UPS의 독일 공항 물류기지 확장사업은 UPS의 104년 역사상 최대의 해외 투자로서 이는 쾰른공항 물류기지를 UPS의 유럽 공항물류의 허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
 - 특히 쾰른공항은 항공물류뿐만 아니라 육상을 통한 유럽 도시와의 연계가 원활함은 물론,
 - 이번 확장공사 건에 대한 계약 체결 시 UPS의 24시간 운영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쾰른공항 측에서 2030년까지 야간시간대 UPS 항공기의 이착륙을 허가해 줌으로써 UPS는 쾰른공항을 유럽 항공물류의 허브기지로 선택하게 됨
- 한편 UPS의 유럽사업 본부장은 이번 확장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유럽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2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자료 : www.aircargoworld.com, 2011.09.15.

김찬호 전문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